

하오 OK 선

[하오 옥션]

하오 OK 선 은 제 4 회 오픈스튜디오를 맞아 처음으로 가지는 작가 초대 기획전입니다
OK 선(옥션)은 가제로 작가님들에게 친숙하고 빠르게 이해를 돕고자 임의로 붙인 단발성 이름임을 알려드립니다.

일시 | 2017 년 10 월 21 일 오후 5 시~밤 10 시

장소 | 한남동 HOUSE STUDIO (세트 스타일리스트 박경섭님의 공간입니다.)

권장작품사이즈 | 1~2 호

작품운반시기 | 10 월 15 일까지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직접 전달.

작품보낼주소 | 서울 용산구 용산동 2 가 1-511 202 호 (부재메세지: 공용비번 1919* 안에 넣어주세요!)

010-3018-5538 (이어니)

작품컨셉 | 옥선에 나오는 작품은 새로 작업하는 것 보다는 기존 작은 드로잉 및 오브제 등을 선호.





< 하우스 스튜디오 전경 >

하오가 만든 OK 선은 대형 옥션의 진행과는 완전히 다른 룰로 진행됩니다. 하오 기획단이 직접 고안하고 만든, **기존에 없던 아주 새로운 방식의 구매 형태**입니다. 그에 따라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설명을 더합니다. 조금 길 수 있지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획 목적	
“작가의 작품을 구매하게 하는 것” “작가의 작품을 소장하는 것” “작가의 작품을 투자하는 것” “작가의 작품을 모으는 것” 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작품을 구매했을 때의 기쁨” “작품을 소장하는 것에 대한 환희 ” “작품에 투자 하는 것에 대한 고찰” “예술품을 모으는 것에 대한 희열” 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왼쪽 글을 읽으면 하오 OK 선 이 “작가”를 위한 기획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기획은 “완벽히 오른쪽”에 취지를 둔 기획입니다	

“작품을 사는 경험”

사실 이 기획은 쉽사리 오지 않습니다.

하오는 그 경험을 제공해주는 장을 마련하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소장의 기쁨”**을 알리는 데 목적을 둔 기획입니다.

하오는 예술가들에게 더 나은 날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소비하고자 할 때 ‘작품 구매’를 우선 순위에 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소장의 기쁨”의 경험해본 이라 생각합니다. 하오는 보다 많은 대중들에게 그러한 특별한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여 예술가로 살아가기에 더 나은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하오 OK 선으로 작품 구매를 경험한 젊은이들은 작품 소장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움직임들이 나비효과를 일으켜 소중한 경험을 제공한 작가님들에게도 언젠가는 좋은 일이 되어 돌아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하오 OK 선은“관람객”에게 “소장의 기쁨”을 주고자 하는 것을 목적을 두고 만든 기획임을 강조드립니다. 이에 따라 **일반 관람객(대학생&회사원)들 기준으로 한번에 지출하기 부담스러운 가격대의 작업들과 크기는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또한 이 기획은 전시가 아니므로 보통 갤러리의 6:4 같은 구조 형식은 띄지 않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경매 회사 같은 경우 20%, 인터넷 경매회사들은 10%의 수수료를 내지만 하오 는 비영리 단체이며 저희 역시 작가단이 만든 기획이므로 **작품 판매 수익 100% 작가님들께 돌아갑니다.**

끝으로 **방식이 전환된 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9 월 전 미팅을 하신 작가님께서는 대부분 피켓을 들고 하는 클래식한 옥션이 될 것이라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시 한국의 옥션 전문가분께 자문을 묻고 그 틀에 맞추어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9 월 중순 하오 OK 의 료를 아예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낸 것에 대한 이야기를 첨부합니다.

전문 옥션 같은 경우 작가가 스스로 작품을 내는 것이 아닌 소장품이 경매에 나옵니다. 작품이 낙찰되지 않아도 이미 컬렉터들은 해당 작품이 소장품인 것을 알고 있으며 작가의 감정도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 추측됩니다. 하지만 **하오 OK 선은 작가분들이 직접 작품을 제출합니다.** 저희의 취지를 듣고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도 작가님에게 어떤 목적으로 저렴한 작품들 위주로 내어 놓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오 OK 선은 어떤 작가님 작업이 구매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자세히 찾아서 들여다보지 않으면 낙찰가격 및 여부가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 전의 클래식을 표방한 방식은 관람객이 피켓을 들고 다 앉아 공개적으로 가격을 부르고 경쟁을 하는 방식이었기에 **혹시라도 작가분들의 감정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료를 도입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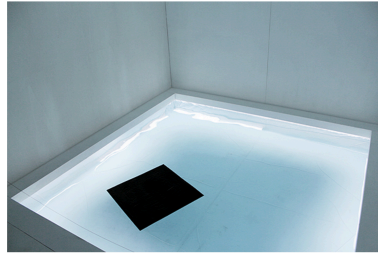
위의 상황들을 고려하여 거듭된 회의 과정들을 통해 새롭게 하오 OK 선 료를 고안하여 만드느라 완성된 포맷이 조금 늦었습니다. 일반 관람객에게 “소장의 기쁨”이라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만든 하오 OK 선 초대 기획전에 함께 참여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긴 글을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하오 기획단 이어나, 윤순영 드림

아래 예시 및 F&Q 를 꼭 확인하세요!!!

예시 1) 안세현



▲ 안세현의 작품 SQUARE 4> 제공=안세현, ©제주의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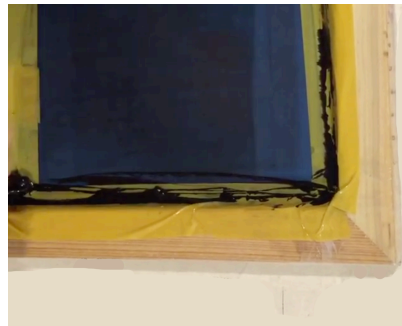


안세현 작가님은 위 사진에서 보이는 떠 있는 '까만 비닐'을 유리에 넣어 옥션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설치 해체 후 소장 중이던 전시의 일부 오브제만을 통해 설치 전체를 떠올리게 하는 소장품으로 탈바꿈한 예시입니다. 전시 후 판매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설치 작가의 해체된 작품을 잘 풀어내어 옥션에 등장시킨 경우입니다.

예시 2) 배중열



배중열 전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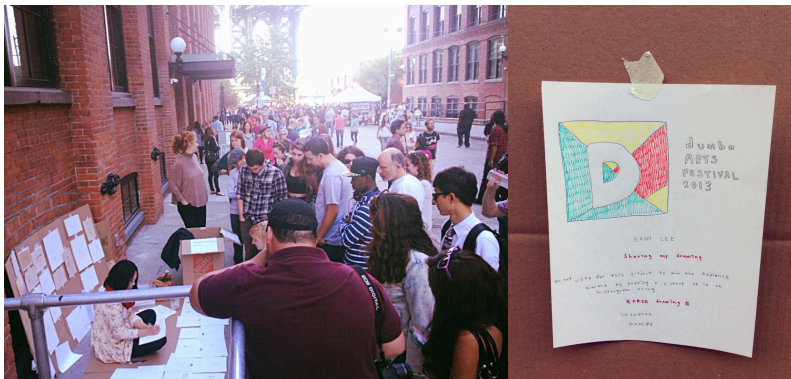
배중열 작가님은 작업에 실크스크린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작가님이 작업물을 만드는 것에 직접 사용하신 틀로서 이제 한번만 더 쓰면 막히게 되는 실크스크린판이 옥션에 나옵니다. 위 예시 1과 다르게 작업물 자체가 아닌 작업을 만드는 틀이 작품으로서 옥션에 나오는 점입니다. 이 경우 드로잉&일러스트 작가의 그림이 다시 다른 장르의 작업으로 전환되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한 번만 더 쓰면 막히게 된다.”에서 그 틀을 오랜 시간 많이 사용했음을 알 수 있고 더불어 작가의 노고와 열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시 3)제로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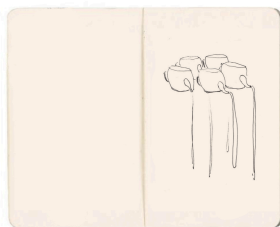


제로랩 디자인팀은 목재와 철 등 다양한 소재를 다루며 디자인 기획과 제작, 설치까지 맡아서 하는 작가님들입니다. 제로랩 역시 설치 전시 후 나왔던 결과물들을 다시 하나의 구조물로 구성하여 참여하십니다. 이는 큰 구조물의 설치가 분리되어 산업 디자인 설치 작품만으로도 아니라 디자인적인 동시에 상업적인 느낌으로의 또 다른 하나의 콘텐츠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여러 면에서 독특한 소장작품으로 어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시 4) 이어니



- 옥션 출품작 1



- 옥션 출품작 2

이어니 작가님은 드로잉과 퍼포먼스 작업을 하십니다. 하오 옥션에는 두 피스를 출품합니다. 하나는 2013 년 뉴욕 덤보 페스티벌에서 드로잉 퍼포먼스 작업 때 쓴 가짜 아티스트 명찰을 그린 종이입니다. 다른 하나는 꿈판매입니다. 이어니 작가님은 2015 년 한국에서의 '당신의 꿈을 삽니다' 퍼포먼스에서 100 원과 1000 원

사이에서 가격을 흥정하며 꿈을 매입했습니다. 당시 “꿈매입”과 “꿈판매”가 기본 틀이었고 그 중 매입한 꿈을 다시 이번 옥션에서 판매합니다. 작가가 내 놓은 꿈을 매입한 종이와 다시 관객에게 팔리면, 관객의 구매행위 자체가 ‘꿈판매’ 퍼포먼스 작업의 연장선이 되는 점이 재미난 옥션 포인트입니다.

예시안을 드린 이유

옥션의 주제는 “소장의 기쁨”이지만 하오는 작가들에게 출품하는 작업들로 인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부디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출품하길 바랍니다. 대부분 네모난 형태의 작업물만 상품성이 띄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답답하실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옥션은 작가분이 편한 마음으로 참여하여, 작가의 작업 일부 혹은 작은 드로잉과 미완성 작업, 해체 후 나온 “원본” “원작” “원화” 작업물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니 옥션을 위해 새롭게 작업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작품들 혹은 벽에 붙여둔 종이, 공책에 그려진 순간적인 글까지도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 한정적으로 1호 캔버스 혹은 1호 종이 등으로 다시 작업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F&Q

> 액자여부?

100 인이 참여하는 옥션입니다. 많은 작업이 한꺼번에 운반되니 액자까지 작품일 경우 포장을 아주 튼튼히 하시거나 직접 내어주세요.

> 가격?

시작가 기준 1만원~20만원 사이의 작품만 출품가능합니다. 즉 1만원에 시작해서 낙찰가가 얼마가 되더라도 출품가는 20만원 이하에서 시작합니다. 시작가는 작가분이 제시합니다. 가벼운 작업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수익 ?

작가님과 구매자를 다이렉트로 연결하여 수익금 100% 작가분에게 돌아갑니다.

> 작품설치 ?

많은 작가님들이 함께 해 주시니 전문 큐레이터(구 김환기 미술관, 스페이스 아트 풀 큐레이터)님이 오셔서 디스플레이를 하십니다. 그러니 작가님들은 작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 낙찰되지 않을 경우?

본 행사에서 낙찰되지 않을 경우 해당 작품들로 전시기획을 예정 중입니다. 원치 않으실 경우 신청서에 체크해주시면 행사 후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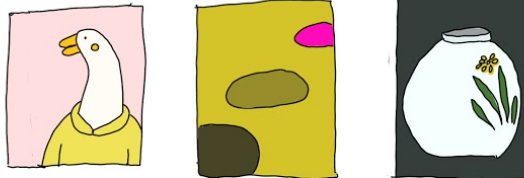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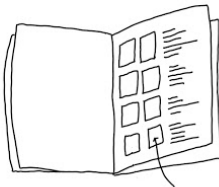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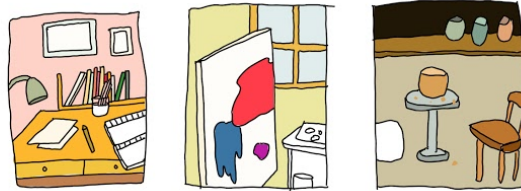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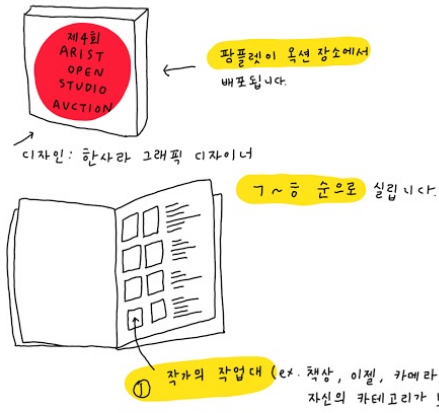
> 그 외에 정보?

본 행사 팸플릿은 참여작가 한사람이 디자인을 맡아주셨으며 옥션 당일 배포됩니다.

밤 8시 30분부터는 송인섭 트리오의 짜즈 공연이 있습니다. 행사장 입장료는 5,000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준비된 음료(와인, 맥주, 커피 등 협찬 예정) 3잔 중 한 잔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본 협찬품들은 장소에 머물고 작품과 행사 취지에 집중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인초대티켓은 없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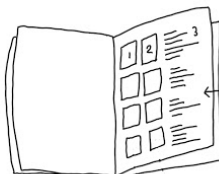
> 참여 방식 설명을 돕기 위한 오리여인의 그림

하오 옥션 참여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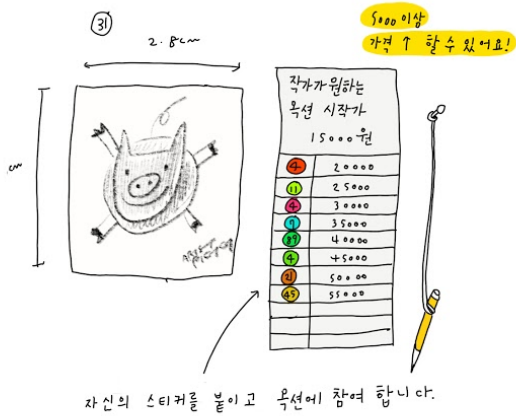
② 옥션에 내시는 그림이 아니라
평소 그림 . 혹은 대표작 사진을 내 주시면 됩니다.

① 번과 ② 번의 사진은 3 : 4 비율, 세로형이 좋습니다.



③ 자신의 약력과 정보가 들어 갑니다.
(작품을 소장하는 것은 평소 작가나 작업을 애정하여서도 있지만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리고 훗날 가능성을 보고 구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④ 옥션에 내는 간단한 그림 정보도 들어 갑니다.
ex) 드로잉 . 3x4 . "오리랑"



하오 목션은 판매금 100 센트 모두 작가에게!